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V.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후반기 선교사역

1)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가족의 재입국과 후반기 생애



존과 제인 힐 부부와 딸 버지니아 힐 선교사 가족
 존 힐(John J. Hill)은 1956년 5월 25일 제인(Jane Kinnett)과 재혼하여 데니(Denny)와 티나(Tina)를 낳았고, 한국에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를 입양하였다. 재혼 전에 존에게는 세 자녀,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이 있었고, 결혼 전 제인은 미혼자로서 물리 찬이라는 중국인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다.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은석은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에서 별세하였다. 이때는 이미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가 대전시 서구 가장동에 터를 잡고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한지 만 3년이 된 시점이었고, 짧지만 김은석도 동역했던 기간이어서 김은석의 사역은 존 힐에게 충분히 인계된 셈이었다. 따라서 대전에서 새로 시작한 존 힐은 김은석의 터전인 충청전라지역을 선교사역지로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 존 힐

이 1955년 7월 5일에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를 아주 떠난 후, 동년 11월에 기독교회선교부를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4년간 여러 차례 순방(巡訪)함으로써 충청전라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존 힐이 해롤드 테일러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충청전라지역에서 누릴 수 있었다.

첫째는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테일러 선교사의 후원방식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한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힐을 반기는 기운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충청전라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김은석 목사가 1963년 1월 21일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김은석은 1950년대 말경 종기(腫氣)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전도사)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았던 일로 목회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칩거에 들어갔다가 별세하기 전까지 만 3년(1960-62)가량 대전에 등지를 틀고 1959년 10월경부터 선교사역을 새로 시작한 존 힐 선교사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도왔기 때문이다.

셋째는 때마침 이 짧은 시기는 테일러 선교사가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의 기독교회선

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의 부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1963년 3월에 다시 개강할 때까지 7,087평의 역촌동(현 신사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조성 중이던 때였다. 서울성서신학교가 3년간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시기인 1959년 12월 1일에 존 힐은 대전에서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1960년대는 존 힐과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충청전라지역에 크게 미친 기간이었다. 충청전라지역에서의 힐 선교사의 영향력이 김은석 목사만큼 크지는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상당수가 충청전라출신이었다. 이 시기만큼은 존 힐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다른 선교사들과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컸다. 또 이 시기는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황금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더 이상 없었고, 6·25와 같은 전쟁도 더 이상 없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선교자금이었다. 그는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 때 한국에서 은퇴하였다. 그의 은퇴가 빨랐던 이유는 모금의 어려움이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 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힐은 1955년에 후임자인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쫓기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듬해인 1956년 5월 25일 존 힐은 중국, 미얀마, 일본,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경험한 미혼여성 제인 키넬트(Jane Kinnett)와 재혼하였고,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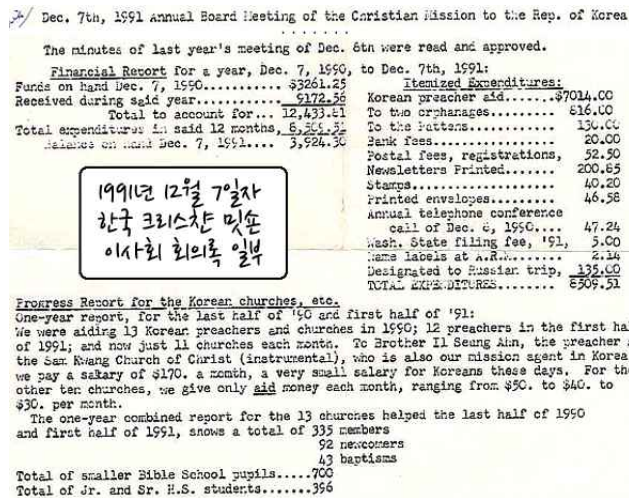
존 힐은 제인과의 사이에서 데니(Denny)와 티나(Tina)를 낳았고, 한국에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를 입양하였다. 재혼 전에 힐에게는 세 자녀,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이 있었고, 제인은 몰리 찬이라는 중국인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다. 제인은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가르치는 크레스턴 그레이드 학교(Creston Grade School)에서 교사로 일한바 있으며, 힐과 결혼한 후인 1956년부터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1959년 전반기까지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존 힐이 1972년 6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목회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인 힐은 1973년 9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학교 요리사로 일하였다. 제인은 B형 간염으로 1982년 6월 29일 별세하였다.

존 힐은 제인과 함께 생애 50대를 한국에서 보낸 1960년대가 가장 성공적인 황금기였다. 그들 부부는 이미 선교사들이 정착한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0여년 넘게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들을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설교하며 침례를 베풀었다. 이밖에도 존 힐은 1959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연무대의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고아원들과 고등공민학교, 맹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는 1939년에 시작한 파란만장한 한국에서의 대역사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영구 귀국한 후에도 별세할

때까지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였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산 증인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존 힐 선교사는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었음을 그가 남긴 몇 장의 카본카피(cc.: 타자기에 두 장의 용지와 그 사이에 먹지를 넣어 복사본을 만든 것)와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찬 밋슨 이사회 회의록(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겨진 카본카피에 의하면, 1978년 5월과 7월에는 밥 워릭(Bob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 앞으로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고, 1978년 9월에는 노봉욱 장로, 1982년 1월에는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안일승 목사 앞으로 힐 요한 선교사의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다. 이 돈은 한화(韓貨)로 환전된 다음 힐이 돕고자 한 후원자들에게 보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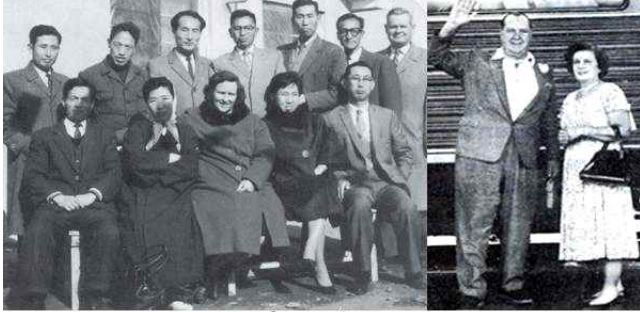


1991년 12월 7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 년에 한차례 12월 초에 있었고, 이사들의 이름과 회의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월잔액이 3,261불 25센트였고, 1991년 수입이 9,172불 56센트였으며, 지출이 8,509불 51센트였다. 1990년에는 2곳의 보육원과 13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나, 1991년의 전반기 6개월은 12개 교회, 후반기 6개월은 11개 교회를 도왔다. 도

움을 준 액수는 목회자의 경우 매월 50불에서 30불까지였다. 삼광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가 매우 적은 액수의 급여(매월 170불)를 받고 대리인의 역할을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다. 필자도 무보수로 잠깐 동안 존 힐 선교사를 위해서 대리인 업무를 보았으나 안일승 목사가 재차 이어받았다.

존 힐은 재인이 별세한 후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 Waltma, 1913-2011)을 만나 재혼하였다. 미국인들은 노년에 혼자 남게 되는 경우, 짝을 만나 재혼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존 힐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만 96세로 별세할 때까지 에텐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에 적시되었듯이 러시아 단기전도사역에도 참여하였다. 힐은 수 천 권의 성경을 러시아에 반입시켰고 나병환자들을 후원하였다. 존 힐은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58분 96세로 미주리 주 조플린에서 별세하여 호프산공원묘지(Mt. Hope Cemetery)에 영면하였다<“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2)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설립과 모금의 어려움



1960-62년경 한국성서신학교 이사진과 교수진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목사, 김관숙 집사, 제인 힐 선교사, 김희영 교수의 사모, 최요한 목사, 뒷줄 우측부터 존 힐 선교사, 최요열 목사, 임훈봉 목사, 임명진 장로, 이신 박사, 정인소 박사, 심영진 목사, 오른쪽의 외국인 부부가 해롤드와 에스터 드바르(Harold and Esther DeBar)이다.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은 1964년 4월 17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교재단이었다. 노봉옥 에텐보 옥원 원장이 발로 뛰어 어렵게 받아 낸 것이었다. 인가장소는 충남 대전시 가장동 79-5(구획정리 후 21-5)번지였으며, 설립이사들은 힐 요한, 힐 제인, 해롤드 드바르(Harold DeBar), 에스터 드바르(Esther DeBar), 임명진 장로, 노봉옥 장로 였다. 이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개명

되었으며, 현재 32개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다.

존 힐은 1964년 5월 2일자로 미국의 대리인인 드바르(De Bar)에게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1963년 9월경에 시작한 40평 크기의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축과 예배드리러는 모습(1964년 8월 26일 촬영). 이 무렵부터 성화교회는 ‘도마기독교교회’로 불렸다.

(1) 대전 유천동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불이 즉시 필요하다.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곧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63년 9월경에 시멘트벽돌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있었고, 이 무렵부터 도마기독교교회로 불렸다. 시멘트벽돌로 40평 건물을 짓기

직전에는 흙벽돌로 지은 20평가량의 건물이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흙벽돌 건물 직전에는 천막교회였다.)

(2) 섬에 보낼 신약성경, 전도지, 복음서, 연필 등이 필요하다.

(3) 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명의 남성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여성 신학생들이(영선, 하봉례)이 가서 설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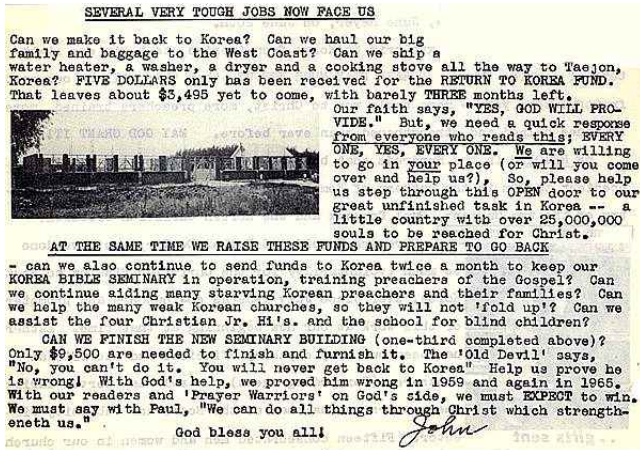
(4) 최요한은 성공적인 부흥목사이며,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이다.

(5)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신혼부부를 소개하였다.

(6) 성공적인 시골 교회로서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당과 성도들을 소개하였다. 힐은 1964년 4월에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7) 목포 인근의 압해도를 방문하여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에서 3일간 설

교하였다. 안방이 비좁아 마당에 명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다. 존 힐 선교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존 힐 선교사의 유품 가운데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서신 (Newsletter) 쪽지. 이 쪽지 속의 사진은 이미 건축된 선교사 주택과 한국성서신학교의 본관 층이 건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965년 재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모금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힐은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걸었다.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 소식(Newsletter) 쪽지에 의하면, 모금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3,500불 가운데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금된 돈이 불과 5불에 불과하다면서 2,500만 한국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필요한 가전도구들을 대전에 실어 보낼 수 있을지를 소식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다. 쪽지의 글(그림)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관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가족과 짐 가방을 서부 해안에 끌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요리용 스토브를 한국 대전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기금이 겨우 5불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다.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3,495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이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 예,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아가야 할 2,5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사는 한 작은 나라 - 한국에 펼쳐놓은 우리의 끝내지 못한 대사업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꼭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들 기금들을 모금하며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한국성서신학교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약한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서,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개의 기독교중학교들과 맹아어린이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신축건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위의 사진: 3분의 1의 공정을 보인 신축건물) 그것을 끝내고 설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작 9,500불입니다. '옛 마귀'는 말하기를, "안 돼. 넌 그것을 할 수 없어. 넌 결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1959년에 입증하였고, 또 다시 1965년에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독자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서명) 존(John).

쪽지 뒷면에는 1959년 힐 요한, 힐 제인 선교사부부가 한국에 나와 대전에 정착할 시점부터 힐 선교사 부부를 미국 대리인들로서 자원하여 도운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 (Harold and Esther DeBar) 부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스타’ 드바르 부부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 부부입니다. 그들은 1959년 7월 이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때인 그 당시 이 사역의 공동 설립자들이요 받기인들로서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매우 능력 있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재정담당자(발송 대리인)이었습니다. 해롤드는 그동안 선교이사회 회장과 홍보 담당자로서 섬겨오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15명의 남녀 성별된 분들이 이 사들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내진 기부금은 세금감면이 됩니다.

3) 1960년대 충청전라지역 교회 상황

해롤드 태일러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 교회가 있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가 324쪽에서 인용한 <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 충북에 13개, 충남에 6개, 전남에 17개,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 1965년 <기독교연감>에 의하면, 1964년 충북에 16개 교회, 충남에 19개 교회, 전남에 24개 교회, 전북에 1개 교회, 도합 60개의 교회가 있었다. 1956년에 36개였던 것이, 힐 요한에 의해서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에 최초의 한국성서신학교 교사(校舍)가 지어지던 1964년까지 만 8년 만에 24개가 더 늘어나 60개가 되었던 것이다<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 2006: 324>.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북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합계
1924-42년 요츠야선교부 설립					0	4	5	5			5		19
1935-41년 존 채이스, 존 힐					0		6		1				7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존 힐													42
1953-58년 김은석 목사 주소록	9	14	28		51		2			2	4		59
1955년 해롤드 태일러 전수조사													75
1957년 기독교연감	6	13	17	0	36								51
1965년 기독교연감	19	16	24	1	60								
1970년 기독교연감													92
1971년 존 J. 힐 주소록	21	14	26	2	63		10	5	2		2		82
1976년 기독교연감													106
1985년 협의회 주소록													286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적힌 교회들로는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었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28-3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7): 298-300;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이들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추정되는 것만을 계수하여 표에 삽입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에서 계수된 59개 교회는 해롤드 태일러 선교사가 1955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75개보다 16개나 적은 숫자이며, 1956년

〈기독교연감〉에 실린 것보다는 8개가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1956년 〈기독교연감〉에 실린 숫자는 전수조사에 의한 것보다 무려 24개나 적은 숫자이다.

존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는 총 88개의 주소가 영어와 한글이 섞인 자필로 실려 있다. 그 가운데 겹친 주소가 2개, 교회가 아닌 주소가 4개, 따라서 총 82개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주소들이다: 서울 10, 전남 26, 전북 2, 충남 21, 충북 14, 경북 2, 강원 2, 경기 5[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21-30; <http://kccs.info/hilljohn.pdf>]. 이들 가운데서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과 겹치는 주소는 21개(전남 10, 충남 3, 충북 8개)이다. 이것은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46-1959년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1971년까지 최소한 21개 정도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과 존 힐의 주소록에 실린 교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었다란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는 리차드 래쉬(Richard Lash) 선교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5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부산에도 장성만 목사가 개척하여 시무한 대교교회와 버트 엘리스(Bert Ellis) 선교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2개 교회들(동광교회, 동아교회)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 힐 선교사 가족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은퇴한 1970년대 초반 곧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의 선교역사가 50년(1924-1974)이 되는 해에는 총 100여개의 교회들이 있었음을 1976년 〈기독교연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무렵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에도 50여개의 교회들이 있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협의회)의 100여개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50여개의 숫자가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일제강점기 말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 폐쇄되거나 해체 당하였고, 해방 후 재건된 교회들이나 개척된 교회들은 또다시 6·25전쟁으로 대부분 흩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교회들은 대다수가 6·25전쟁이후에 재건되었거나 시작된 것들이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의 경우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서울성서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는 추가로 설립된 한국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신학교들에 힘입어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무려 180개 교회들이 증가(2.7배)하여 총 286개로 성장하였다. 이 숫자는 적지 아니한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자들’의 숫자이므로 개척된 교회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은 그리스도신학대학과 성경통신교육원(BCC)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충청전라지역 교회 상황을 보면, 1946-59년까지의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남에 50여개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 존 힐 선교사와 한국성서신학교의 10여년의 선교사역의 결과물은 충청과 전남에서 12개 교회가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존 힐의 주소록에 실린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을 포함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 숫자는 타 교단으로 이적한 교회들과 생존에 실패한 교회들의 숫자가 빠

져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소폭으로나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부침이 극심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60-70년대는 1980년대를 위한 긴 인고의 시간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신학교들이 대학으로 개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많이 늦기는 하였지만, 1972년 2월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정부로부터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 2일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는 그 보다 9년이나 늦은 1981년 2월 16일 학교법인 성령학원과 한성신학교로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존 힐이 1960년대에 누렸던 충청전라지방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최윤권 목사와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점차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학력인정 지정은 한성신학교(1983년 10월 5일)가 대한기독교신학교(1985년 2월 2일)보다 1년 먼저 받았다. 이로써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이들 신학교들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서 1980-90년대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1) 존 힐 선교사의 자필 주소록에 명기된 목회자들(50명)

강경준, 고광석(윤식), 고재윤, 김동식, 김동열, 김봉섭, 김상식, 김상신, 김순철, 김영신, 김용순, 김은성, 김일순, 김재술, 김재업, 김정만, 김중현(장로), 김치연, 김칠성, 김현경, 김형주, 라명환, 명연재, 명철재, 민흥기, 박옥채, 설하운, 송영히, 심영진, 안병호, 안일승, 양정식, 오현팔, 유덕례, 이규승, 이백호, 이사돈, 이순애, 이안식, 임병선, 장주업, 장휘명, 조규석, 조충연, 최요한, 최용호, 최이선, 최태시, 함명덕, 함태영(창현).

(2) 존 힐 선교사의 자필 주소록에 명기된 교회들

강원도 강능(릉)시 병산리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도 강능(릉)시 옥천동 사서함8호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주문진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장주열 목사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업 목사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이황리 장호원(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안병호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655,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설하운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송의동 231 송의 그리스도의 교회 김영신(?)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양정식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히 전도사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 오현팔 목사
 부산시 부산진구 금성-개척관 내, 김봉섭 목사
 부산시 중앙 YMCA내 -
 서울 마포구 대흥동 18 신촌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산 53 갈현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산 42-2 역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식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 홍제동 그리스도의 교회 조충연 목사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274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 민흥기 목사

서울 영등포구 외발산동 197-3 광명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도원동산 10,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98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85-4 대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기룡리 103 기룡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중앙리 작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읍 서성리 103 강진읍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 금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광주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목포시 고하도 고하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 목사
 전남 무안군 이로면 외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여천군(여수시) 돌산면 우두리 세구지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 전도사
 전남 여천군(여수시) 화양면 장등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 최이선
 전남 영암군 학산면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순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대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공사(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형주 전도사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상구신리 구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일순 목사
 전남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방축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중현 장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평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연재 전도사
 전남 해남군 화(황)산면 삼호리(옥동리) 삼호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신 전도사, 유덕례
 전북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 태매, 대산 그리스도의 교회 라명환 전도사 <전북 김제군 공
 덕면 공덕리 금아 (대산교회), 김일수 남자집사, 염소키우는 분>
 전북 전주 금암동 728-156 그리스도의 교회 최용호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탑골리 금성 그리스도의 교회 함명덕 목사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사(산)3동 880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양촌면 산직2구 신정 그리스도의 교회 이백호 전도사
 충남 대덕구 탄동면 내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철재 전도사
 충남 대덕군 북면 석봉리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김용순 목사
 충남 대덕군 유성면 죽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철성 전도사
 충남 대전시 가양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술
 충남 대전시 대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사돈 목사
 충남 대전시 대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식 전도사
 충남 대전시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 심영진 목사
 충남 대전시 산성동 450 그리스도의 교회 임병선 목사
 충남 대전시 석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박옥채 전도사
 충남 대전시 선화동2구 315번지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치연 목사
 충남 대전시 신흥동 161-33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현경 목사
 충남 대전시 판암동 476 판암 그리스도의 교회 고재윤 목사

충남 마산군 은봉면 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보령군 주포면 마강2리 구슬 그리스도의 교회 최태시 전도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황골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천원군(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전도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강경준 전도사
 충북 괴산군 불정면 과전리(외령리) 영촌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영천리 반농 그리스도의 교회 김정만 목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안식 목사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그리스도의 교회 고광석(윤식) 목사
 충북 주원군(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노은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증원군 동양면 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조규석 목사
 충북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덕은(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증원군 소태면 복탄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성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 함태영(창현) 목사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규승 전도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송정 그리스도의 교회, 치 전도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그리스도의 교회

4) 존 힐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들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충남 논산군 연무읍 논산 순의도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힘썼다.

존 힐 선교사는 충남 논산군 연무읍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옥 원장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논산 순의도 중학교,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장호원과 충주에 세워졌던 총 네 개의 기독교 중학교들과 이리 땡아 어린이학교를 지원하였다. 그가 지원했던 이들 학교들 가운데는 자금부족으로 두 곳이나 문을 닫았지만, 1965년의 선교소식지에 의하면, 존 힐 선교사는 이들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금에

5) 존 힐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에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 1959년 이후 홍경채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자신의 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 밖에도 충남 부여군 합송리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다. 이 무렵 힐 부부는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도 힘을 썼다.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를 지원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부산 성광원 법인 설립과 대전 선교부 보육원 건물건립도 지원하였다.

미국 시카고의 김순철 목사의 회고대로, 존 힐 선교사는 일제치하와 전쟁후유증으로 궁핍하고 고단했던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아버이가 된 심령으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셨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된장국의 국거리를 사 나르시던 정성 어린 손길”을 가졌던 심성이 매우 따뜻한 분이였다. 1961년 3월 2일에 쓴 춘선(崔春善)의 감사서신에 따르면, 힐 요한 선교사는 일기가 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선의 결혼식이 있었던 인천까지 찾아가 축하하고 선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성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게 하였던 것이다.

6) 한국성서신학교의 설립과 건축

1955년에 가정문제로 한국을 떠났던 힐은 이듬해인 1956년에 제인과 재혼하였고, 3년 후인 1959년 8월에 제인과 두 살이 다 된 아기 데니를 데리고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였다. 부산에서 두 달 동안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선교사가 없는 대전에 정착하였다. 알렉스 빌즈(Alex V. Bills) 가족은 1956년부터 부산에서 기독교 방송 선교부를 창립하여 전파선교를 감당하면서 방송국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때였다.



(상) 한국성서신학교 개교 당시 교수와 학생들(1959-60년 겨울)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교회당 앞(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제인과 존 힐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운,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 (좌하) 성화교회당에서의 수업 장면: 난로 우편 뒤 고광석, 난로 우편 앞 김찬영. (우하)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건축된 20평 규모의 성화교회

1950년대 말까지 부강교회와 선화교회를 설립하는 등 충청과 전라권에서 목회자 육성과 교회개척에 힘을 쏟으며, 수십여 개 교회들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던 김은석 목사와 논산(연무) 에텐보육원과 순의도 중학교 설립자 노봉욱 장로가 힐 가족의 대전 정착에 큰 힘을 보탰다.

한국성서신학교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존 힐(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1959년 12월 1일에 개교되었다. 첫 수업은 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당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심영진 목사시무. 1958년 8월에 신축된 20평 흙벽돌집)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며, 교수진은 존

과 제인 힐 부부, 김은석 목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통역), 김찬영(통역) 등이었다.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 목사가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고광석 목사시무)로 옮겼다. 이신은 1959-60년에 부산문화방송에서 방송설교를 하고 있었다.

힐은 1961년에 가장동 유등천변의 큰 부지를 매입하여 천막교회를 시작하였고, 선교사 주택, 예배당, 학생숙소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 장학 명목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가장동 캠퍼스 시대가 열리면서 1962년 3월에 교명을 서울에서 쓰던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바꿨고 이 명칭은 20년간 사용되었다. 당시 테일러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로써 1940년대에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던 신학교의 맥을 잇는 동시에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1963년 1월 21일 소천)의 신화신학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 영향권 아래 있었던 충청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성서신학교와 존 힐 선교사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힐 선교사는 1964-65년 사이에 생애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기까지 가장 긴 만 5년의 기간을 선교사로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보람차게 보냈다. 이때의 교수들은 존과 제인 힐, 김은석, 심영진, 이신(1966.09 미국유학), 최요열, 김이영(김찬영, 통역, 1962년 말 입대, 1965.09 미국유학), 소교민(통역), 리차드 래시(Richard and Melba Lash), 김히영(통역 및 음악), 임춘봉 등이었다. 이 무렵 화가였던 이신 목사는 메노라(일곱 줄기 등대)를 양각한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그리스도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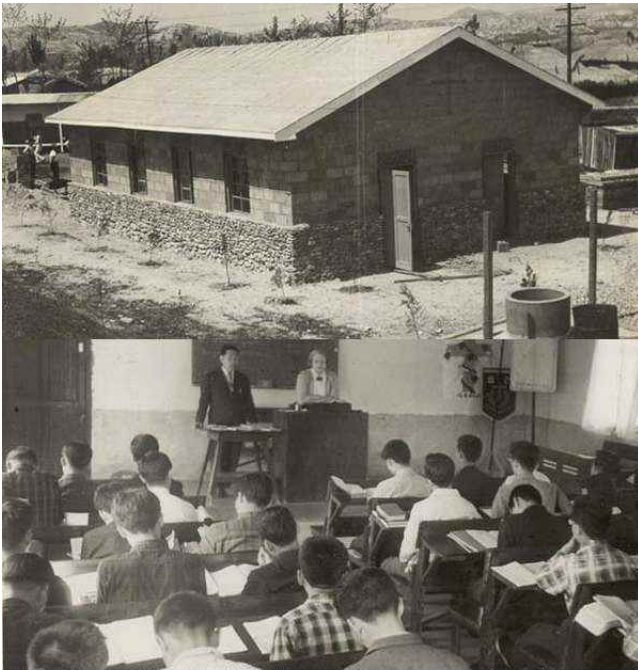


한국성서신학교의 최초 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건물 외벽에 걸렸던 한국성서신학교 현판(이신 목사 제작)

회를 시무한 바 있는 임춘봉 목사는 교가를 작사하였으며, 군에 입대한 김찬영 통역의 후임으로 부산에서 알렉스 빌즈의 방송선교부 PD로 있다가 교수진에 합류한 김희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였다.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김치연 및 졸업생들 가운데 이은수, 김은석의 양자 김성철(충남대 졸업), 최용호(80년대 초 미국유학), 천명화(목원대 졸업), 인원영, 최금생(YMCA 간사), 박태규(통역) 등이 1960년

대 중반부터 70년대 초에 교수진에 합류하였다. 선교사들로는 프레드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과 힐의 딸 버지니아(Virginia)가 합류하였다. 힐의 지도력으로 1960년대에 9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들을 섬김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설립하였다.

힐이 재임했던 1960년대 기간에 가장동 캠퍼스에는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위한 2층 저택과 단층 주택(소실), 학생들이 만든 시멘트블록 교회당과 기숙사와 몇 채의 작은 직원 숙소들 및 고아들을 위한 단층 벽돌슬래브주택이 있었다.



1960년대 초의 원룸 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시멘트 미장을 마친 후에는 외벽 십자가 밑에 이신 목사가 제작한 현판을 걸었다. 초기에는 내부 바닥으로 마루를 깔았다가 이내 견어내고 시멘트 미장을 마친 후에는 사진에서처럼 책걸상을 강의자 형태로 교체하였다. 교사가 건축된 후에는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되었다.

1961년경에 힐 선교사 가족과 선교부를 위한 2층 주택과 또 한 채의 단층 주택 및 신학교 기숙사가 지어진 다음, 1962년에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신학교 강의실 겸용으로 지어졌다. 이 교회당은 교사가 건축될 때까지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신학교 원룸강의실로 쓰였다. 처음 지을 때는 마룻바닥이었으나 마루를 들어내고 시멘트바닥으로 바꾼 후 책상을 곁할 수 있도록 책받침을 넓게 만든 강의자를 사용하였다. 교실이 급했기 때문에 안팎의 벽을 시멘트로 미장도 하기 전부터 강의실로 쓰였다. 비록 장소가 누추하고, 책상은 열악하며, 춥고 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던 때였다. 근로와 학업을 겸했던 이 시대의 청장년들은 오늘날의 청장년들보다 정신적으로 월등히 성숙했었다.



1965-66년경에 존 힐 선교사가 완공시킨 본관 건물. 이로써 한국성서신학교는 교실, 두란, 현관, 교무실과 행정실을 갖추게 되었다.

힐은 1964년에 최초의 교사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현관이 딸린 행정 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이었다. 1959년 여름에 한국에 나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존 힐 선교사 가족은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미국에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고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선교

소식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낼 때, 3분의 1의 건축공정을 마친 본관건물의 사진을 실었다. 힐 선교사는 이 건물을 완전히 끝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9,500불이라고 적었다. 힐 선교사 내외는 이 건물을 끝내기 위해서 힘겨운 모금전쟁을 펼쳐야 했다.

힐은 건축공정을 끝내고 커튼까지 드리운 이 건물을 몇 년간 교사로 사용하다가 선교사역 30주년이 되던 1969년 봄에 2층으로 올리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1971년 초여름까지 지연되다가 선교사 조 가맨(Joe Garman)과 김찬영의 도움으로 1972년 초여름에 완공되었다. 그해 1972년 6월에 힐과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과 패츄리샤(Patricia) 선교사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때로부터 90년대 말까지 근 30년간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김은석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에 이어 김찬영 박사의 지도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기독교신학교가 1972년 2월에 정부로부터 4년제 각종학교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또 서울에 소재한 신학교란 점에서 존 힐이 1960년대에 누렸던 충청전라지방의 영향력의 상당부분이 자연스럽게 최윤권 목사와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쏠리게 되었다.



1972년 6월 2층 증축공사 완공과 존 힐 선교사 가족 송별 기념사진. 2층 공사가 완공되어 말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현관 위쪽에 아치 모양으로 한글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하였고, 그 밑에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존 힐 선교사 가족의 마지막 해였던 1972년은 필자가 한국성서신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해이다. 그 덕분에 필자는 존 힐 선교사로부터 한 학기동안 강의를 듣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존 힐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강의였다. 3월에 개강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2층 증축을 거의 끝낸 현관 2층 상단에는 교명을 새기기 위한 거푸집이 설치된

상태였다. 그리고 6월 송별 사진에서는 교명을 새기는 작업과 페인트칠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운동장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존 J. 힐(힐 요한) 선교사는 사진에서처럼 2층으로 증축된 건물과 현관 위쪽에 새겨진 아치 모양의 '한국성서신학교'와 그 밑에 일직선으로 새긴 'KOREA BIBLE SEMINARY' 작업까지 모든 공정을 지켜본 후 파란만장했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

든 사역과 ‘한국 크리스찬 밋슨’의 재산을 김찬영 박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7) 존 힐 선교사의 제자들(1960-71년)

1960년대를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신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72년에 힐은 졸업생이 90여명에 이른다고만 하였다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썰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존 힐 선교사가 1960년대 기간에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연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팁은 김찬영 박사(한양대 교육학), 이신 박사(밴더빌트대 목회학), 김희영 교수의 도미(渡美)시점이다. 김찬영 박사는 힐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존 힐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62년 말 혹은 63년 초경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이신 박사는 1966년 9월에 도미하여 71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희영 교수는 63년 봄부터 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미국에 이민 갈 때까지 존 힐 선교사의 통역과 음악교수를 맡았다. 따라서 김찬영 박사가 함께한 사진은 59년 말부터 62년까지이고, 이신 박사가 함께 사진은 65년까지이며, 김희영 교수가 함께한 사진은 63년 이후 70년까지이다.



(상) 1961년 12월 12일 제회 졸업생: 좌측부터 고재윤, 김영어, 윤기열, 존힐 (하) 교수진과 재학생: 앞줄 좌측부터 이은수, 소교민, 김찬영, 존힐, 이신, 최보열, 김영어, 송명희, 가운데 줄 우측부터 최명순, 유경숙, 한 사람 건너 남중열, 한 사람 건너 박태규, 조사환, 임환만, 김송차, 뒷줄 우측 첫 번째 박병문, 좌측부터 신영기, 최창운, 안일승, 안원영.

이곳에 실린 졸업 또는 재학생들의 이름은 파악 가능한 경우에 한한 것이며, 졸업생만 95명에 이른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대략 25퍼센트 정도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끝까지 남아 사역하였다. 이 25퍼센트는 70년대 이후 한성신학교 또는 한민학교 졸업생들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잔류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1970-80년대는 한국에 전도 폭발이 있었던 시대였으므로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타 교단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목회사역을 이어갔고, 학업을 지속하여 학위를 갖추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음교회의 윤기열 목사, 라명환 목사, 홍성교회의 유기성 목사, 인천장로교회의

최정성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역임), 대천교회의 장세동 목사, 예산교회의 신성철 목사, 인천감리교회의 천명화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역임)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졸업생들이 꽤 많았다. 이들 중 다수가 미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사업에도 성공하였다.

(1) 추정 가능한 졸업생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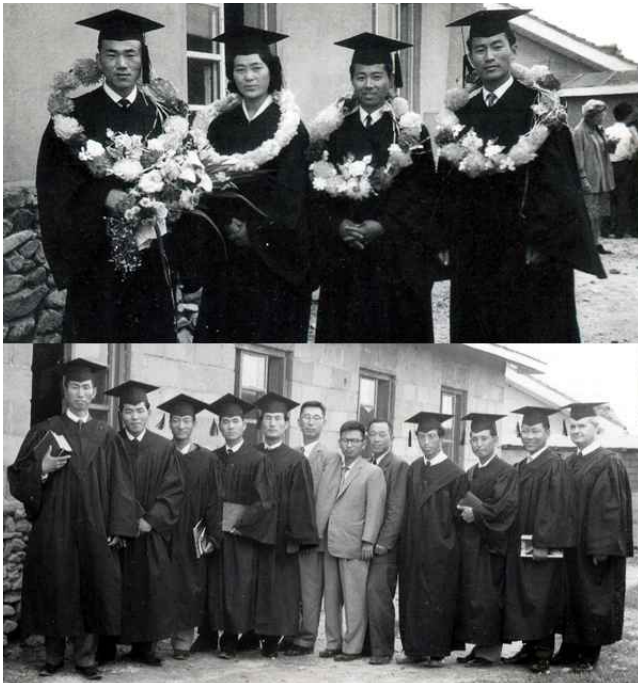
- 제1회(61년 12월): 고재운, 윤기열, 김영애
제2회(62년 6월): 김송차, 조사환(태영)
제3회(62년 12월): 안일승, 인원영, 남충열, 유정숙, 최명순
제4회(63년 12월): 신영기, 최창운, 송명희, 이은수
제5회(64년 12월): 임홍만, 박병문, 최용호
제6회(65년 6월): 이영선, 하복례, 박경식, 김인숙, 김도영, 김은영, 남동식, 최금생, 강신용, 김승일, 한옥동, 박문자
제7회(65년 12월): 유근희, 최태시, 천명화, 유문자, 김재업, 라명환, 박영자
제8회(66년 6월): 고원필, 김경주, 조규석
제9회(66년 12월): 송행자, 김영애, 이백호, 김준배
제10회(67년 6월): 최정성, 이덕환, 박태규,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제11회(67년 12월): 김은미
제12회(68년 7월): 김재술, 석만영, 최중원, 이용복, 임병선
제13회(68년 12월): 현정규, 김호규, 이정식, 김규화,
제14회(69년 6월): 안병호, 박근희, 나몽기, 최이선
제15회(69년 12월): 장휘명, 채동수, 김수영, 정진성, 김용임, 최세동, 김순철, 이영호
제16회(70년 6월): 함태욱
제17회(70년 12월): 김영현, 전금자, 최송희
제18회(71년 6월):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김동식
제19회(71년 12월): 오순덕, 박옥채, 강신의, 이사운, 장건일, 지정자, 조경숙, 엄정자, 유덕례
제20회(72년 12월): 박종서, 안승학, 이선재, 조남중, 권영옥, 주형근, 오홍련. <총 95명>

(2) 힐 선교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가나다순)

강신용, 강신의, 고원필, 고재운, 권영옥, 권오천, 김경주, 김규화, 김도영, 김동식, 김복례, 김성철, 김송차, 김수영, 김순철, 김승일, 김영애, 김영현, 김용임, 김은미, 김은영, 김인숙, 김재술, 김재업, 김정례, 김준배, 김형주, 김호규,

김효자, 나몽기, 남동식, 남충열, 라명환, 문안심, 박경식, 박근희, 박근화, 박남용, 박문자, 박병문, 박영자, 박옥채, 박종서, 박태규, 서광석, 석만영, 송명희, 송완현, 송행자, 순동식, 신성철, 신영기, 안병호, 안승학, 안일승, 양태운, 엄정자, 오순덕, 오홍련, 유근희, 유기성, 유덕례, 유문자, 유정숙, 유창윤, 윤기열, 이덕환, 이백호, 이선재, 이사운, 이영선, 이영호, 이용복, 이은수, 이정식, 이종대, 이춘만, 이춘식, 이홍렬, 인원영, 임병선, 임영일, 임홍만, 장건일, 장휘명, 전금자, 전상희, 정수모, 정진성, 조경숙, 조규석, 조남중, 조동호, 조성식, 조사환(태영), 조순례, 조오환, 주형근, 지정자, 지철희, 채동수, 천명화, 최금생, 최명순, 최세동, 최송희, 최용호, 최이선, 최정성, 최중원, 최창운, 최태시, 최창효, 하복례, 한규덕, 한옥동, 함태욱, 현정규, 홍순기
 <총 119명>

(3) 미국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



(상) 1963년 12월 졸업생: 좌측부터 이은수(본과 제1회), 송명희, 최창윤, 신영기(이상 제4회). (하) 교수진과 내빈들: 좌측부터 임춘복, 김성철, 최요열, 이은수, 이선, 이종만, 임병진, 우측부터 존 힐, 김희영, 심영진, 정요소

이은수 목사(본과1회, 뉴욕 동산교회), 신영기 목사(제4회, 일리노이 병원 정신과 상담의사), 박경식 목사와 김인숙 사모(제6회, 목회은퇴 후 기도원 사역), 김희영 교수(국제 와이즈먼 클럽 총재 역임), 유근희 박사(제7회,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 아시안/태평양 교회 담당자 역임), 이영선 사모(제6회), 하복례 전도사(제6회), 최태시 목사(제7회), 고원필 목사(제8회), 이백호 목사와 박근화 사모(제9회), 현정규 목사(13회)와 오순덕 사모(제19회), 유정숙, 최창효, 장휘명 목사, 김순철 목사(제15회,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등이 있다. 이영선(6회) 사모의 남편은 미국 C.M.A 교단 감독을 역임하였다.

8) 존 힐 선교사의 교회 건축과 후원



존 힐 선교사는 많은 돈을 모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늘 선교비가 부족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 한국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야할 곳이 너무 많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존 힐은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힐은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일(한국 교회 후원)을 계속할 것이다”(I will continue to do this work until I go into Heaven)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노봉욱, ‘발간사,’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14-15].

존 힐 선교사는 1960년대 기간에 충청이남지역에서 일생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쳤고, 생애 황금기인 50대를 보냈다. 거의 매주일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으며 예배당 건축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도왔다.

존 힐 선교사 때 건축 중인 몇 개의 교회들
 좌상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 선화동교회(1965년, 김치연 목사),
 신탄진교회(1969년, 김봉순 목사), 전주 금암교회(1960년대 중반, 최봉호 목사),
 충북 청원군 양촌교회(1972년, 인운영 목사), 부강교회(1960년대, 목회자 미상),
 경기도 안양교회(1962년, 장주열 목사).

의 생활을 도왔다.

2. 존 힐 선교사의 동료들



19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대학에서 열린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 뒷줄 우측에 리차드 래쉬, 존 힐, 8번째 최봉호, 둘째 줄 좌측에 제인 힐, 셋째 줄 우측부터 6번째 김중현, 8번째 고광석, 14번째 천명화, 둘째 줄 우측부터 장주열, 노봉욱, 임훈봉, 장성만, 최요한, 9번째 조규석,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4번째 안일승 (이상 목사).

존 힐 선교사의 동료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사진만으로 볼 때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 성숙해 보이지만, 그들의 출생연도를 따져보면, 20대 또는 30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젊은 청장년들이었다. 아래에 소개한 사진들 속의 인물들도 성낙소, 김은석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대 청장년들이다.

1) 노봉욱 장로



노봉욱 장로(2007년 1월 25일)
에덴보육원, 연무여자(순의도)중학교 설립자.

노봉욱 장로는 1959년 10월 15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에 에덴보육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 세광고등공민학교, 학교법인 순의도 학원,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등을 설립 운영하였다.

에덴보육원 원장 또는 이사장으로서 노봉욱 장로는 40여 년간 700여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다. 노봉욱 장로는 나희화 사모로부터 3남2녀를 낳았으나 원생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형 동생 누나 언니 등으로 친형제자매의 의를 맺도록 하였다.

노봉욱은 원주대학 사회사업과를 졸업하였고,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교육과를 수료하였다. 오신초등학교와 서울 호제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가르쳤고, 세광고등공민학교 설립 및 동교 교장, 학교법인 순의도 학원 설립 및 순의도 여중(현 연무여중) 교장,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설립 및 동원장,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이사장 및 에덴보육원 원장, 사단법인 한국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충남도지회장, 사회복지법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충남도 부회장,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이사 및 이사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부회장, 논산 YMCA 설립 및 초대이사장, 중국 조선족 어린이 사랑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훈으로는 충남도지사 공로표창 2회,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표창 2회, 국무총리 공로표창,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대회장상, 국민포장 수훈,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受勳)하였다.

노봉욱은 평남 용강군 오신면 내덕리 노촌(노씨만 모여 사는 마을) 부락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약 4Km 떨어진 덕해장로교회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노봉욱은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휘문중학교에 입학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하숙을 정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1939년 봄 첫 주일 때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골목길을 나선 후 찬송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이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였던 최상현 목사와 존 힐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의 자녀인 최윤권 목사, 최윤모 장로도 거기서 만났다. 이후 노봉욱은 힐의 동료로서 일평생을 동역하였다. 노봉욱은 돈암교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의 인생은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빛나게 펼쳐졌다. 나는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고, 주교 반사, 유년부 부장도 지냈다. 최상현 목사님으로부터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셨고, 큰 병이 났을 때면 병원비도 대어 주셨고, 그러던 분이 6·25사변 때 이북으로 납치 당하셨으니....



에덴 보육원 건축

그뿐 아니라 지금도 최목사님 댁과 사돈관계까지 맺고 있고, 이렇게 굳게 맺어진 인연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John J. Hill 선교사님과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 연세 93세) 주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그분 선교 사업을 돕게 되었으니...

이상의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바이다 [노봉욱, '나와의 만남,'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92].

2) 고재윤 목사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 유족부터 존힐 선교사, 고재윤 목사

고재윤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1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성서신학교가 개교된 1959년 12월 1일부터 수강한 첫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개교 직후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1959-60년 겨울 단체 사진 속에서 고재윤이 발견되고 있다. 고재윤은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여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1983-1987년) 등에서 사역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다

년간 근무하였다.

3) 김히영 교수

김히영 교수는 김찬영 목사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1963년 봄에 존 힐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통역과 음악교수로 수고하였다. 이 무렵 신학교의 이사들은 이종만 목사, 김현숙 전도사, 임명진 장로, 노봉욱 원장이었고, 교수들은 이신 목사(신학교 현판제작), 임춘봉 목사(교가 작사), 심영진 목사, 최요열 목사 등이었다. 김히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였다. 그의 지도 아래 최정성, 이백호와 같은 재학생들로 구성된 남성4중창단이 결성되었고, 찬양사역에 힘썼다.

한국성서신학교에 오기 전 김히영은 1957년 이래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



김희영 교수
1998-99년 와이즈먼 클럽 국제 총재

가 창립한 부산 소재 '크리스찬 라디오 및 송' (Korea Christian Mission, CRM)에서 방송프로제작, 음악편집을 맡아 일하였다. CRM에 근무하는 동안 CRM 전속 한국 최초의 남성 사중창단, '넷소리'를 창립하였고, 설교 통역 등을 담당하였다. 1959-60년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산에 내려가 방송설교를 하였다. 빌즈 선교사는 방송국 허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자금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1961년에 고향인 미국 텍사스 주로 돌아갔다.

김희영은 19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 미주리 주 조플린 소재 오자크 신학대학으로 이민하였다. 조플린에서 1974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근 20년간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와이즈먼 활동을 하였

다. 이후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월셔 와이즈먼 클럽회장(197-78), 미주 남서 지구 후리웨이 지방장(1981-82), 미주 태평양 남서지구 총재(1987-88), 미주 지역 총재(1955-96), 국제 총재(1988-99) 등을 동양인 최초로 역임하였다.



(상) 1960년대 선화동교회 침례교인, (하) 1969년 3월 30일 선화동교회, 앞줄 우측 버지니아 힐, 뒷줄 우측부터 김희영, 함명덕, 존 힐, 제인 힐, 폴린과 마크 맥시(일본 가고시마 선교사), 김치연, 고광석, 심영진

4) 김치연 목사

김치연 목사는 평안남도 중화군(당시) 출신으로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오랫동안 대전교도소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고, 1965년부터 1970년대 기간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다. 퇴임 후 대전 시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였다.

김치연은 1949년에 교도관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 7면 보도에 의하면, 교도관의 날을 맞아 대전교도소장이 18년 동안의 교도관생활에서 1백46명의 죄익수들을 전향시키고 무의무탁한 남녀수형자들에게 짝을 맺어준 공로를

인정하여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金致淵(김치연)(44)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1967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 7면].

또 1984년에는 대전, 대구, 전주, 청주 등을 돌면서 무려 1050명의 죄익수를 전향시킨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을 수상하였다. 이 일로 김대중 노무현 문민정부 때, 여러 차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행사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사망케 한 23세의 재일교포 문세광에게 1974년 11월 14일 사형이 집행될 때 김치연 목사가 3분 동안 문세광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문세광은 두 손을 마주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다고 전한다. 김치연 목사는 노환으로 2013년 10월 29일 별세하였다.

5) 김순철 목사



김순철 목사(미국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국 국장)
김순철 목사는 존 할 선교사(2009년 11월 4일 별세)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2011년 11월 19일 존 할 선교사의 유물
(사진첩 2개,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를 한국으로 가져와 총회에 전달하였다.

김순철 목사는 1943년 2월 18일 충남 천안시 출생으로 한국성서신학교를 1969년에 제15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으로써 졸업 후 충남 병천에서 목회하였다. 19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82년부터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여 18년간 사역하다가 2001년부터는 1978년에 개국하여 20만 한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국을 맡아 2020년까지 20년간 헌신하였다. 이 방송은 주변 위스콘신 주부터 인디애나 주까지 청취가 가능하다. 채널 임대비용으로 매월 2만 5천불이 들어가는 큰 선교 사업이다.

시카고기독교방송은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송출되며, 선교사 인터뷰, 선교사의 시간, 설교, 선교현장 리포트, 찬양 등으로 꾸며진다. 김순철

목사는 방송선교의 위력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960년대 병천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목사(중앙)
좌측 두 번째부터 김리영 교수, 심영진 목사.

어떤 분이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미시간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독교방송 설교를 듣고 자살을 포기했대요. 호수로 차를 몰고 가면서 들은 방송설교 내용이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다. 죽을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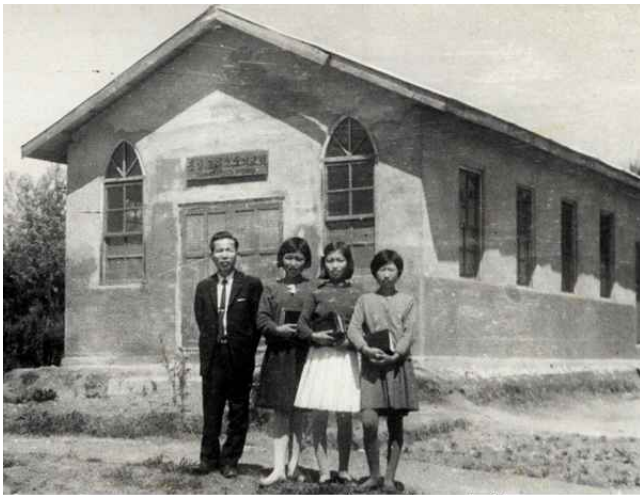
유등천에서 좌부터 심영진 목사, 김순철(목사), 존 힐 선교사(1960년대)

을 가질 정도로 독한 생각을 품었다면, 반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해요.

김순철은 시카고지역교회 협의회장, 교역자회 회장, 지역평통자문위원 8년, 그리스도의 교회 미주한인교회총회 총회장, 한성미주동문회 회장,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맥코믹 신학교 동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1년 11월 19일에는 한성미주동문회 회장의 자격으로 존 힐 선교사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존 힐 선교사의 1960년대 유품(사진, 등)을 한국에 가지고 나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총회에 전달하는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김순철 목사는 2023년 4월 7일 별세하였다.

6) 안일승 목사



1960년대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 안일승 목사

안일승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2년에 제3회로 졸업한 후 문암, 삼광 등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특히 그는 존 힐 선교사가 미국에서 보낸 후원금을 지정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보았다.

고재윤, 안일승, 김순철 이외에도 최용호(64년, 제5회, 한성 신학교 교수, 다락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최금생(65년, 제6회, YMCA간사, 한성 신학교 교수, 대전햇불회장 역임, 열린 그

리스도의 교회), 박문자(65년, 제6회, 부곡 그리스도의 교회), 유근희(65년, 제7회, 박사, 북미주 태평양/아시아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담당자 은퇴), 최중원(68년, 제12회, 장수 계월 그리스도의 교회), 김호규(68년, 제13회, 경남정보대학 교목실장 및 학장, 대학교회 목사 역임), 안병호(69년, 제14회, 장호원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69년, 제15회, 미국), 김동식(71년, 제18회, 주월 산돌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박옥채(71년, 제19회, 소망 그리스도의 교회), 조남중(72년, 제20회,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주형근(72년, 제20회,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거나 지속하고 있다.

7)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Bendure)

버지니아 힐은 존 힐 선교사의 딸로서 6·25전쟁 중에 일본에서 보낸 기간을 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 이후 버지니아는 미국 미주리 주 조플린 시에 소재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선교사로 1966년 8월 29일 재입국하여 3년 만인 1969년 5월 30일 영구 귀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가맨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Virginia Hill,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부흥전도여행기간에 결신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일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또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였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6명의 그리스도인 의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믿지 않는 직업군인 두 명과 몇몇 여성들에게 전도 목적으로 영어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 또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30여명의 간호실습생들에게 영어성경을 가르쳤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50여명이 참석하는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 말고도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영아들, 고아들, 복음중학교 학생들,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흥만 목사의 기독교중학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 운영기금, 목회자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헌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궤도, 성경, 카메라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1966년에 마크 맥시(Mark and Pauline Maxey) 일본 규슈 가고시마 주재 선교사가 한국성서신학교를 방문하였고, 한국성서신학교는 1967년 봄 학기에 52명이 등록하였으며, 6월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졸업하였다. 동년 8월에 고하도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었고, 약 65명의 목회자들과 15명의 여전도사들이 참석하였다.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18일에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15명의 고아들을 인수받아 대전 크리스찬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 보모로는 김은미, 김부금, 조선희, 김은희, 유문자 등이 수고하였고, 고아원은 세계보건기구 공무원

인 엘리자베스 머이 세내들어 거주하던 선교부의 일층에 있었다. 그 후 한국성서신학교 교내에 ‘스나이더 홀’이라 명명한 단층 주택이 건립되었는데, 대전 크리스찬 보육원이 이 건물에 입주하였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이 건물 이외에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와 부산 성광원 법인설립을 지원하였다.



대전 크리스찬 맞손 보육원(초등학교 8학년 아이들)

보육원을 설립한 지 만 일 년이 지난 1969년 4월 30일에 버지니아 힐이 쓴 서신에 의하면, 보육원에 아이들이 23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그해 5월 30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부모인 존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후 한

국에 나온 조와 린다 가맨(Joe and Linda Garman) 부부가 보육원과 신학교 관리를 안식년을 맞은 힐 선교사 내외를 대신해서 10개월간 책임졌다<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Virginia Hill-Missionary's Newsletter, Jun. 1966-May 1969>. 미국에 돌아간 버지니아는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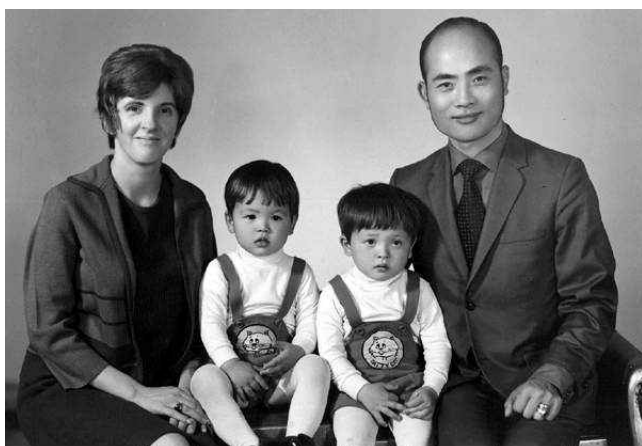
버지니아 힐은 1967년에 한국의 주일 예배의 특징을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녀가 경험한 독특한 이 한국의 예배문화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차,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잊힌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남기기로 하였다.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주일’(주님의 날)

주일은 한 시간가량 걸리는 새벽 4시30분 기도회(찬양과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 김치(땀게 절인 배추), 김 혹은 콩나물국, 그리고 종종, 운이 좋은 날이면, 계란 또는 말린 작은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오전 9시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인주일학교가 없다. 대신에 주중에 모임을 갖는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새신자 그리스도인 고등학교 소녀들 또는 청장년들에 의해 인도된다. 이 예배는 10시까지 이어진다. 대예배가 10시 30분에 시작된다. 그러나 찬양은 10시 15분 혹은 교인들이 오는 대로 곧바로 시작된다. 그들은 목회자를 위해 성미(쌀)주머니들을 들고 와 예배당 뒤쪽 성미상자에 넣는다. 그리고 남성은 예배당 한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숙여 각자 기도를 한다. 개개인은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각자의 소중한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른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짐 말은 우리 구주,” 기타 다른 자주 부르는 찬송가들을 부른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작은 흠뻑 건물이 폭발할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나면 한 교인이 대표로 나와 기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진다. 교인들, 특히 나이든 남성과 여성들은 감동에 따라 요동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봉독한 후 힘 있게 설교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한다. 초청송을 부른 후, 헌금송과 헌금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걷기 위해 긴 막대기가 달린 헌금바구니를 남집사와 여집사들이 돌린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목사들이 집례한다. 장

로들은 남성들에게, 여집사들은 여성들에게 분병과 분잔을 제공한다. 침례식은 날씨가 따뜻할 때 (때로는 심지어 겨울에도) 개울이나 강에서 집행된다. 때때로 가까운 목욕탕(‘오프로’ 혹은 커다란 일본식 욕탕)에서 집행된다. 점심식사는 아침식사와 거의 동일하다. 저녁식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7시 30분 혹은 여름인 경우 9시에도 시작되는 저녁예배에 참석한다. 저녁예배는 주의 만찬이 없는 것만 빼고는 오전 예배와 거의 동일하다<“A TYPICAL ‘CHU_IL’ (LORD’S DAY) FOR A KOREAN CHRISTIAN,”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Missionary Virginia Hill, 1967년말: 3>.

8) 김찬영 박사



1970년 11월 15일 귀국 당시의 김찬영 박사와 패츄리샤 부부

김찬영 박사는 193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김찬영은 부산에 내려가 장성만 목사가 세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며 세족회 회원이 되었다. 1959년 8월에 존 힐 선교사 가족이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을 때, 통역이 되어 존 힐의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존 힐 선교사의 선교사역들을 돕다가 1962년 4월경에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1965년 9월 5일 존 힐과 장

성만 목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존슨성서대학(현 존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같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패츄리샤(Patricia Ann Cox)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결혼하였다.

존슨성서대학을 졸업한 후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성서대학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and Cincinnati Bible Seminary)에 입학하여 1969년 5월 10일 졸업하였다. 이후 신시내티 대학교와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후, 부인 패츄리샤(Patricia Ann Cox)와 자녀들을 데리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김찬영 박사는 1972년 6월에 존 J. 힐 선교사가 정년으로 퇴임함에 따라, 가장동 유등천 변에 교실 2칸, 행정사무실 2칸, 교회당 1채, 선교사 사택 2채, 보육원 단층 1채, 기숙사 1동을 물려받고, 1972년 1월 21일 36살의 나이로 한국성서신학교의 제2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 무렵인 1971년에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 부부가 내한하여 한국 크리스찬 밋손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프레드는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엘리는 대전 오정동 외국인 학교에서 가르쳤다. 한국성서신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김찬영 교장은 1970-80년대 기간에 힐이 1969년에 시작한 본관 2층 공사를 완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3층 증축, 우측으로 잇대어 지은 3층 신축교사, 신축교사에 잇대어 북쪽 방향으로 지은 3층 신축 선교관, 1968년부터 보육원으로 사용되던 1층 별관의 3층 증축(여자기숙사)과 부지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3. 존 J. 힐 선교사의 1976-77년 복귀 시도

1972년 6월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존 힐 선교사 부부가 불과 4년 만에 미국에서 하던 사역들을 접고 1976년 8월 16일 한국에 돌아와 이듬해 1977년에 돌아간 일이 있었다.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돌려 받기 위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사건이었다. 김찬영 교장이 신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교회에 지원해야 할 일부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투서가 힐에게 보내졌던 것 같고, 의심을 품은 힐이 분개하여 한국에 나와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찾아 이신 박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등 다른 동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노봉욱 장로의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78-79쪽에 의하면, 한국에 돌아온 힐 선교사부부는 당시 기획실장의 방해로 신학교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출장 중이던 김찬영도 급히 귀국하여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노봉욱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힐과 김찬영의 대화는 싱겁게 끝났다고 한다. 신학교 교장직과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문전박대를 했던 최 모 기획실장을 해임하라는 힐의 모든 요구를 만 40세였던 김찬영이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 노봉욱은 79쪽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다음 과제는 학교 운영권 문제요, 김찬영 학장 거취문제였다.... 김찬영 학장이 학교 운영하는 동안 시행착오와 잘못도 있지만, 그간의 공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학장 재직 시 학교 부지 확장과 교사 증축 등 이룩한 공도 있고 하니, 그것을 인정 그와 함께 협력하고,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안배키로 하되, 우선 Hill 선교사께서 택일토록 권유했다. 드디어 Hill 선교사의 승낙을 얻어 운영권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으나, 그 후 곧 번복 백지화되어 원상태로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었다[노봉욱, '힐 선교사의 거룩한 분노,'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79].

1977년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신 박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김정한 목사 등이 존 힐 선교사와 함께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서 찾아와 재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설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강력히 항거함으로써 그들의 뜻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때의 일을 노봉욱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렇게 엇치락뒤치락 난항을 거듭하게 된 배후에는 Hill 선교사의 또 다른 측근자 L. 목사 제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나와 의견이 다른 그분들과 Hill 선교사집 응접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Hill 선교사 내외분도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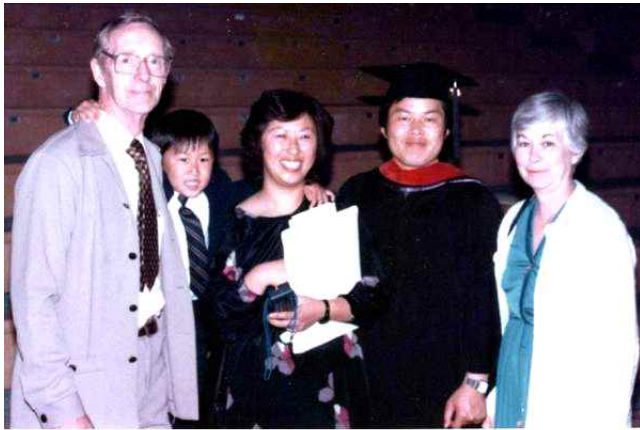
토론이 극에 달하자 쌍방은 감정이 격해져 인신공격 등 고성어 오고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Jane Hill 사모님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문을 박차고 내실로 들어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Hill 선교사 사모님은 본국으로 단신 귀국했고, 뒤를 이어 Hill 선교사도 귀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한성신학교 운영권은 그대로 김찬영 학장 몫으로 남게 되었다<Ibid.>.

힐은 미국으로 떠난 대신에 견제장치로 일본에서 사역하던 밥 워릭(Robert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를 1977년에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근무케 하였다.

선교사들의 후원비 유용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었다. 일본에서 커닝햄과 채이스의

분열도 그래서 일어났고, 강명석 목사(전도자)도 주변 인물들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모함을 받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47세에 요절하였다.

김찬영 박사는 1972년 36살의 젊은 날에 교장의 일을 맡아 그 어렵던 1970년대에 학교를 키워보려는 열망에 학교 부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증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밀가루 한 포대만 집에 있어도 감지덕지하던 시대에 먹고사는 수준이 확연히 달라 보여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교회후원금 유용에 대한 의심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존 힐, 이신, 심영진, 김태수, 김치연, 노봉욱 등의 선배 목사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지 못한 것은 그 후로도 두고 두고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



조동호 목사의 Cincinnati Bible Seminary(M.Div)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밥과 조이스 워릭(Robert and Joice Warrick) 선교사 부부

1977년에 일본에서 대전으로 건너온 밥과 조이스 워릭 선교사 부부는 한국 실정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다가 별반 문제점이 없어보였는지 1978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고, 1981년에 은퇴한 후 미국 인디애나 주로 돌아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별세하였다. 밥과 조이스 워릭은 1965년에 일본에 건너가 고아원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베테랑 선교사인 마크 맥시

(Mark Maxey)의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백년”(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의하면, 밥과 조이스가 운영한 고아원은 도쿄에서 멀지 아니한 사이타마 현 사야마(Sayama)에 있었고, 줄리어스와 버지니아 플리노어(Julius and Virginia Fleenor) 부부가 함께 사역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도쿄 변두리에 소재한 크리스천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에서 일하였다. 딸 바버라(Barbara)가 1971-72년 사이에 일 년간 그들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갔고, 1977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정규 교사로 사역하였다.

존 힐은 자신이 보내는 교회후원금을 밥 워릭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후 노봉욱 원장, 안일승 목사, 조동호 교수(한성신학교 교회개혁후원회), 다시 안일승 목사에게 이 일을 맡겼다. 존 힐 선교사의 교회후원금은 작은 액수로써 한 푼도 착오가 있을 수 없는 목적기부금이어서 대리인은 그 돈을 환전하여 전달하면 끝이었다. 1960년대 힐 선교사의 모금형태를 보면, 대부분 목적후원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대로 써야하므로 존 힐 선교사조차도 임의로 쓸 수 없는 돈이었다.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한국 크리스찬 밋손’ 소속 선교사들

1) 힐 Hill, Carol Virginia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존 J. 힐(John Jesse Hill)과 에스더 에벌린 비반즈(Esther Evelyn Beavans)의 딸로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후, 독립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에서 사역하기 위해,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에서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고, 선교사 자녀, 의사, 직업군인, 간호실습생에게, 또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또한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 목회자, 영아, 고아, 복음중학교 학생,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흥만 목사의 기독교중학교, 논산에덴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 운영기금, 목회자 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헌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 궤도, 성경, 카메라 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

버지니아는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와 당진에서 온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버지니아의 보육원'(Virginia's Orphanage)으로 알려진 '대전 크리스찬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 보모로는 김은미, 김부금, 조선희, 김은희, 유문자 등이 수고하였다. 보육원은 원래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뎀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선교부의 일층에 있었는데, 후에 한국성서신학교 교내에 건립된 '스나이더 홀'이라는 단층 주택에 입주하였다.

버지니아는 1969년 5월 30일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힐 부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했지만, 한동안 대전 보육원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대리인으로 수고했다. 자녀로는 딸 에이미(Aimee), 수산나(Susannah), 룯(Ruth)을 두었다.

[주요저술] "A Typical 'CHU_IL' (Lord's Day) for a Korean Christian,"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Missionary Virginia Hill, 1967년말: 3;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Virginia Hill-Missionary's Newsletter, Jun. 1966-May 1969.

[참고문헌]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쿤란, 2018; 존 J. 힐, "韓國 「그리스도의 교회」 略史", 「쎄메론」 7호(1972), <http://kccs.info/rmp002.htm>;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2) 가맨 Joe R. Garman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신학교육, 부흥전도, 교도소 선교.



조 가맨(Joe R. Garman)

조 가맨 선교사는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 소재한 오자크 크리스천 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을 졸업하였다. 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에서 전국을 돌며 부흥전도집회를 개최하여 일천여명이 넘는 결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바가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안식년을 맞이한 존 힐(John J. Hill) 가족을 대신하여 1969년에 입국하여 1970년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대전시 가장동 소재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부흥전도집회들을 인도하였으며, 전국의 교도소들에서 설교하였다. 부인 린다(Linda)는 신학교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돌보았다. 또 1971-72년에는 한국성서신학교 본관 2층 공사가 완공되도록 미국에서 건축자금을 모금하였다.

조 가맨이 교도소 선교에 사명을 갖게 된 계기는 1969년에 미군 군목으로부터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의 미국인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자 한국인 교도소 소장이 조 가맨 선교사에게 한국인 수감자들도 방문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후로 한국 전역의 교도소들에서 전임사역을 감당하였다. 한국 교도소 사역이 확고히 자리 잡은 후 조 가맨 부부는 교도소 사역을 지역 교회들에 넘겼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건너가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체류비자의 갱신이 거부되자, 미국으로 돌아가 1973년 5월 10일에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미국사회복귀선교회’(ARM, American Rehabilitation Ministries, Prison Outreach International)를 조직하여 40년 넘게 교도소 선교에 힘써왔다. 현재는 1500개 주 및 연방 교도소들에 수감된 120만여 명과 또 다른 3200개 교도소들에 수감된 50만여 명의 수감자들을 섬기고 있다. ARM은 2001년부터 멕시코 교도소 선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로 범위를 확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노력을 확장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태국, 한국(세진회), 필리핀에 지부 교도소선교회가 추가되었다. 현재 ARM에는 6개 대륙의 교도소들과 유치장들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5개의 국제 지부를 두고 있다.

[주요저술] Joe R. Garman, “ABOUT ARM (American Rehabilitation Ministries)”, <https://www.arm.org/about-arm/>; Joe R. Garman, “Garman marks 40th year serving in prison ministry”,

https://www.joplinglobe.com/news/lifestyles/garman-marks-40th-year-serving-in-prison-ministry/article_59663132-1431-5db0-8c4e-08a2e7814319.html.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8), 150-51, 179-80, 202,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97, 43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Taejon Korea, April 18,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썬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Virginia Hill,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3) 코모 Paul Comeaux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폴 코모(Paul Comeaux)는 조와 린다 가맨(Joe R. and Linda Garman) 부부와 함께 1969년에 입국하여 1970년까지 조 가맨 선교사를 도와 부흥전도집회와 교도소 선교를 하였으며, 대전시 가장동 소재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보살폈다. 귀국 후에도 폴 코모는 몇 차례 더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였다.

[주요저술]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8), 202-03, 264.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4) 김 Patricia Ann (Cox) Kim 1946.05.03.-현재,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패츄리샤(Patricia Ann Cox)는 아버지 조 콕스(Joe Cox)와 어머니 매기(Maggie)에게서 1946년 5월 3일 버지니아 주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에 드류리 메이슨 고등학교(Drewry Mason High School)를 졸업하였고, 1966년 존슨성서대학(현 Johnson University)에 재학하던 중에 한국인 김찬영(교육학 박사)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버지니아 주 마틴스빌(Martinsville, Virginia)에서 결혼하였다. 25살 때인 1970년 11월

15일 남편과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입국하여 대전에서 27년간 사역하였다.



패츄리샤 김(Patricia Ann Kim)

패츄리샤 선교사와 남편 김찬영 박사는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의 설립자 존 힐(John J. Hill) 선교사가 1972년 6월에 정년퇴임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슨(1964년 4월 17일 설립)과 한국성서신학교(1959년 12월 설립)에 1972년 1월 21일 각각 이사장과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부지확장과 교사신축 및 대학개편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7년 2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선교회를 설립인가 받았고, 다음 해인 1978년에는 부설 한성고등기술학교와 한성유치원이 설립되었다. 1981년 2월 16일에는 사립학교 법에 의해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설립되었고, 교명을 한성신학교로 변경하였다. 곧 이어 1983년 10월 5일에는 학력인정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84년 11월 5일에는 신학연구원 인가를 받았다. 1986년에는 종교음악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였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12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교사를 짓고 1989년 7월 이전하였다. 1987년 12월 9일에는 기독교교육과를 신설하였고 입학정원수를 총 180명으로 증원하였다.

패츄리샤 선교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었으나 신학교 영내에 있던 보육원의 아동 2남 2녀와 월남에서 온 사내아이 1명, 총 5명을 입양하였으며, 이들을 미국에 보내 공부시켰다. 또 패츄리샤는 신학교 영내에 있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논산 연무읍의 에덴 보육원과 대전 자양동에 있는 피얼스 영아원을 도왔다. 또 패츄리샤는 고아들의 외국 입양과 병든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수술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1982년 대전시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1989년 5월 5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1991년 5월 5일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1998년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미국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법인 CRAM Worldwide (Christ Reaching Asia Mission Worldwide)을 공동 명으로 조직하여 베트남, 중국,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에 주력하였다.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옮겨 훈춘시에 거주하면서 훈춘시에 특수교육학교(장애자 150명, 교직원 50명)와 희망외국어학교, 복음식품유한회사(장애자 제빵기술교육 및 간식용 제빵공장), 희망농목개발유한회사(장애아동 재활승마 목장, 가축 목장, 옥수수 콩 경작지)를 세웠고, 인근 양포의 5천여 평 부지에 1천여 평의 건물을 지어 고아원(장애자들)과 양로원을 세웠다.

또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북한 나진시로부터 거주증과 명예 시민증을 발급받아 훈춘을 통해서 북한 나진시와 선봉시에 출입하며 진료소 3곳(신해, 유현, 비파에 위치)과 120명을 수용하는 나진고아원을 헌당하였고(2006년 5월 17일), 빵공장을

건립하여 매일 4-5천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콩 우유를 공급하였으며, 신해 목장과 유치원 및 탁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밖에도 부모 없는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수용기술학교와 비즈니스텔을 세웠다. 패츄리샤 선교사 부부는 나선 지역에 들어가 직접 식량과 모포를 비롯한 의류, 약품 등을 지원해왔다.

또 필리핀 바쿠어(Bacoor) 빈민촌에 김상호(전 한성신학교 교수), 전미식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여 어린이 학교보내기, 수백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3만원 지원, 50개 교회 개척 목표를 정하여 23개째 교회개척과 예배당 건립, 무료급식, 식량 및 생필품지원, 집 지어주기 및 수리해주기, 청소년 위기 센터인 샤론의 집(Sharon house) 운영, 빈민지역 14개 교회의 수천여명의 성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캄보디아 나환자촌을 돕고 있으며, 베트남 선교도 지속하고 있다.

[주요저술] Patricia Kim, “CY and Pat Kim with Christ Reaching Asia Mission (CRAM): The Kims serve in China and North Korea”, <http://storage.cloversites.com/okolonachristianchurch/documents/CYKim1.pdf>; Patricia Kim, “Yesterday, Today, Tomorrow Only By God’s Grace”, <https://cramworldwide.org/50yr-ministry-by-patricia-kim/> [게시: October 4, 2018].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37-47,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1-54,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46-51. 패츄리샤 김(Patricia Ann Kim) 선교사 <http://kccs.pe.kr/rmp021.htm>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5) 호프만 Fred Hoffman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성서신학교 교수.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 부부는 존 힐(John J. Hill) 선교사의 초청으로 1971년에 입국하여 1973년까지 대전에서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Korea)에 소속되어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선교사 부부와 김찬영 박사와 패츄리샤(C. Y. and Patricia Kim)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하였다. 특히 프레드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엘리는 대전 오정동 소재 외국인 유치원에서 주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신학교의 업무들을 도왔고,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돌보았다.

[주요저술]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8),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95, 446-4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Taejon Korea, April 18,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썬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